

명품 낙지요리 개발 관광객 입맛 잡는다

무안군, 요리사 7명 선발 TF 구성 낙지 단품요리·곱어기 대체요리 등 음식점과 레시피 공유해 상품화

무안군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특산물인 낙지를 활용한 요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읍내 명품음식거리 내 낙지요리 음식점 22곳 중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주방 요리사 7명을 뽑아 요리개발 기획팀(TF)을 구성했다.

요리개발 TF팀은 지난 10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월 2회 주기적으로 만나 영업주가 주도적으로 메뉴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어렵하고 맛있는 낙지 단품요리와 무안 특산물을 이용한 곱어기·비수어기 대체요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무안을 찾는 관광객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기존의 낙지 요리를 변화시켜 모든 세대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도 개발한다.



무안군 요리개발 TF팀에 선발된 음식점 요리사들이 다양한 낙지요리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군은 요리개발이 완료되면 낙지요리 음식점과 레시피를 공유하고 개발된 요리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과 연계한 요리체험 콘텐츠, 단품요리 시식 등을 통해 무안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한번 맛보면 다시 생각나는 메

뉴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낙지요리 음식점들과 연계해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남도 명품 음식거리에 오셔서 다리가 길고 가늘어 육질이 부드럽고 쫄깃한 무안 낙지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진도군 가족센터' 착공

가족 교육·상담 등 제공

진도군민들의 교류·소통 공간으로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도군 가족센터'가 건립된다.

진도군은 진도읍 동외리 일원에서 이동진 군수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가족센터' 안건기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가족센터는 연면적 1586㎡의 부지에 영유아·아동의 돌봄과 놀이시설, 가족 교류·소통 공간, 가족상담·교육 시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진도군 가족센터는 공모사업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 지방비 38억원 등 총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층에는 키즈카페, 실내 암벽등반장 등을 마련

한 다목적 가족 소통공간과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자녀를 함께 돌보고 소통할 수 있는 놀이·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층과 3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 연령대와 가족형태별 교육·상담 등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된다.

진도군은 가족센터가 전세대를 아우르는 교류·소통공간이자 가족이 직면하는 돌봄, 소통 등의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해 가족 활동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교류하고, 보다 나은 군민들의 미래를 위해 가족 교육·상담 등 보편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해남군, 땅끝가족어울림센터 하반기 문 연다

140억 들여 지상 4층 규모 육아나눔터·돌봄센터 등 조성

해남군민의 출산과 양육, 돌봄 등 통합적 가족지원 기능을 수행할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올 하반기 문을 연다.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2억원, 지방비 108억원 등 총 1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곳은 해남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등을 갖춘 다목적 복합시설로 옛 해남공공도서관 부지에 연면적 423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해 기존 건물 철거 후 본격 착공에 들어가 현재 지하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어울림센터에서는 가족교육과 상담, 문화 프로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조감도.

그램, 한국어 교육 등도 운영할 계획이며, 보육과 돌봄, 가족건강 등 복합화 기능을 갖춘 해남군의 가족어울림 공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해남군은 민선 7기 보육분야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20년 장난감도서관을 개관, 영유아 발달시기에 따라 필요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육아비용 부담을 덜고 있다.

어린이의 성장발달 단계별로 130종, 508여점 장난감을 보유한 장난감도서관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취학 전 영유아에게 필요한 장난감을 대여하게 된다.

2022년 3월 현재 누적 회원 360여 명이 이용 중으로 지금까지 7568회에 이르는 대여횟수를 기록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센터 내로 이전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은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땅끝가족어울림센터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 만들기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신지도서 전국 해변 노르딕워킹 대회

4월 1일~30일까지... 299명 접수

'해양치유 1번지'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오는 5월 7일 전국 최초로 해변 노르딕워킹 대회를 개최한다.

해양치유 선도 지자체인 완도군은 2018년부터 노르딕워킹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변을 중심으로 노르딕워킹 코스를 개발했다.

이번 대회는 신지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조성된 바다치유길과 숲치유길에서 진행한다.

총 299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며 동호인 149명, 일반인 150명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이다.

대회는 '노르딕워킹 코스 걷기 완주'와 노르딕워킹의 핵심 동작인 '알파 동작 대회'로 나뉜다.

동호인 코스(숲치유길, 8.6km)와 일반인 코스(바다치유길, 4.5km)로 구분해 진행된다.

동호인 코스 참가자는 노르딕워킹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노르딕워킹 폴(pole)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일반인 코스는 현장에서 폴을 대여받고 노르딕워킹 기본 동작을 배운 후 출발한다.

걷기 완주자에게는 완주 메달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알파 동작 대회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부상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지원팀(061-550-5682, 5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를 대표하는 힐링 체험 프로그램인 해변 노르딕워킹. 참가자들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걷고 있다. <완도군 제공>

목포해양수산청, 신안 장산 북강선착장에 등대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신안군 장산도 북강선착장 인근 해역에 4억원을 들여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등대(등표)를 설치한다.

등대는 직경 6.0m, 높이 14.4m 규모로 장산도와 안좌도, 자라도 합류지점 암초에 자리한다. 등대가 설치되는 암초는 물이 들 경우 눈에 보이

지 않아 평상시 주변을 통행하는 선박들의 좌초 위험이 상존했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부터 안좌-장산-신의간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개시되면서 선사나 지역 어민들이 암초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등대 설치를 요청해 왔다.

목포해양수산청 등대가 설치될 경우 어선은 물론 섬 사랑11호, 농협카페리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재 목포해양수청 항로표지과장은 "등대가 설치되는 장소 주변에는 암초가 많고 조류가 빨라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